

# 바이오 인력양성 본격화...실무교육으로 산업 기반 다진다

### 전남바이오진흥원, 조선대 약대생 대상 GMP 기반 실습 330만㎡ 화순 특화단지 연계...연 1000명 인력양성 목표

전남 화순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약품 산업 인력양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무 중심 교육과 산업단지 조성이 맞물리며 지역 바이오 생태계 구축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제약실무실습'을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조선대 약학대학 6학년 학생 11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기반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GMP 품질시스템

운영,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제조시설 관리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조선대 약학대학 간 협약을 바탕으로 지속 추진되고 있는 산학 협력 교육이다. 지난해에도 약학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실습이 진행된 바 있다.

이 같은 교육 확대는 화순이 국가 차원의 바이오 거점으로 부상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화순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돼

약 330만㎡ 규모의 백신·면역치료 산업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이에 대응해 총 60억원을 투입, 2026년까지 GMP 실습 교육장과 비(非)GMP 실험실실, 첨단 장비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화순군도 교육생 숙소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서 연간 1000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동삼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의약품 본부장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약학 인재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산업 현장에서 역할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WHO 글로벌 바이오 화순캠퍼스를 중심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바이오 인력양성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제약실무실습'을 진행했다.

# 여수시, 11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해양관광도시 명성 확인

### 여수세계세탁박람회 준비 총력

여수시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11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은 국가 자산으로서 가치와 경쟁력을 갖춘 국가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사전 기초조사와 소비자 설문조사, 전문가 최종 심사를 거쳐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를 산출한 뒤 국내 산업, 문화, 도시 등 부문별 최고 브랜드에 수여된다.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는 브랜드 인지도, 대표성·정체성, 만족도, 충성도, 글로벌 경쟁력 등 지표를 바탕으로 소비자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해 평가된다. 여수시는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에서 종합 점수 76.68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11년 연속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여수시청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섬과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여수만의 매력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진 기자 swg3318@gwangnam.co.kr

# 고흥 농촌왕진버스, 주민 건강 돌봄 역할 특화

### 한방 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고흥 농촌왕진버스 사업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으며 성장리에 운영되고 있다.

최근 농동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건강검진에는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왕진버스에는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주피지오)가 참여해 양방진료, 한방 진료, 검안 검사, 돌보기 처방 등 다양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만족을 이끌어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지난해 7개소에서 운영됐으나, 올해는 팔영농협과 흥양농협이 각각 2회씩 참여하면서 총 9회로 확대됐다.

농동농협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장에서는 양한방 진료와 검안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2024년 시작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도 운영 확대와 내실 있는 서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주피지오)는 최근 농동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촌왕진버스 건강검진을 실시,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

비스 제공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 서구새마을회, 나무 심기 캠페인 전개

### '도심 속 한반도 숲 조성'...목목 4000주 식재

광주시 서구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무 심기 캠페인 '도심 속 한반도 숲 조성'을 전개했다고 6일 밝혔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봄을 맞아 서구 일대에서 각 동별 공원 여러 곳으로 나눠 팔배나무, 아광나무, 구상나무 등 목목 약 4000주를 심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서구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창숙 광주시 서구새마을회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 공동체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진됐다"며 "서구 중심지에 모여 캠페인을 펼친 뒤 각 마을로 흩어져 실제 식재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 서구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나무 심기 캠페인 '도심 속 한반도 숲 조성'을 전개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최근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학 진흥을 위한 상생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학호남진흥원

# 10만점 넘는 한국학 자료 번역 강화 초석 '맞손'

###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업무협약

호남권 한국학 자료를 10만 여 점 이상 수집해 권역별 4개 국학기관 중 두 번째로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국역 사업 활성화에 초석을 다졌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지난 2일 한국고전번역원(원장 김연중)과 한국학 진흥을 위한 상생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전번역원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고전 번역과 문집을 발행해 온 명실상부한 고전 번역 대표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전 번역 및 국역, 국학 자료 조사·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등 사업 분야와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콘텐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홍영기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양해각서 체결을 넘어, 양 기관이 지난 자원의 교류를 통해 한국학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장흥용산농협은 최근 조합원 자녀들의 학업을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응원하기 위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 장흥용산농협, 미래 인재 응원 앞장

### 농촌희망 장학금 900만원 전달

장흥용산농협은 최근 조합원 자녀들의 학업을 격려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응원하기 위한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조합원의 교육비 절감을 돕고자 마련됐다.

장흥용산농협은 대학생 6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900만원을 전달했다.

장흥용산농협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원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사업을 넘어 교육과 복지, 지역사회 상생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철환 장흥용산농협 조합장은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해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난 1일부터 장흥용산농협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홍=정명수 기자 jms050311@